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와 대학교육 강화 방안

김민구 |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회장, 아주대학교 기획처장



## 1. 서론

대학생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는 미국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를 등록금을 내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재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대학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학교의 입장에서 대학교육 강화 방안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를 진단하고,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한다. 제시된 방안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면서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적인 여건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1인당 대학의 교육비는 GDP 대비 OECD 국가의 평균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교육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중 대학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및 학생 스스로의 만족도 등은 비교적 하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여러 지적들이 있다. 그 중 하나로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이 실용적인 교육보다는 이론적인 교육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은 가지만,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대학교 학생과 한국대학교 학생의 전형적인 대학공부 패턴을 살펴보자. 한국 대학생들은 많은 경우 학기 시작 후 2~3주가 지나면 강의를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2주 전부터 시험공부 위주의 학습을 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강의 시간에 부과되는 숙제와 퀴즈를 통해 강의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물론 학교에 따라 또한 교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 대학생이 평일 방과 후에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6시간이라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는 평균 2~3시간 정도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많은 한국 대학생은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는 반면 미국 대학생의 대부분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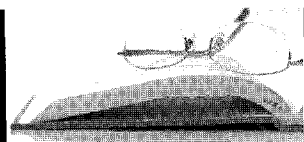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한국 대학생들이 잘못해서만은 아니다. 교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전체가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초중고 교육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방과 후 공부하는 시간은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에 비해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학생들의 방과 후 공부도 여전히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에도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교수의 연봉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상위권에 속하지만, 교수 대 학생비는 OECD 평균에 밑에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많은 대학들이 성과에 의한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3. 대학교육 강화 방안

본 장에서는 대학교육 강화의 전반적인 차원의 언급보다는 강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 강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폭넓은 차원의 대학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2009년 6월에 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 포럼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게 다룬 바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대학이 실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수업에서 숙제와 퀴즈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교수가 꼼꼼히 지도해 주는 교육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히 주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또한 기업도 대학에서 주는 성적의 질을 판단하여 선발해야 한다.

많은 교수들이 지적하듯이 교육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의 노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육 지원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숙제 채점 등을 담당하는 능력 있는 조교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유능한 대학원생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환경에서 교육 강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연수원에 보내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동원하여 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2년째를 맞이하면서 많은 대학들의 이자금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4. 대학재정의 확충 방안

고비용/저효율 교육 구조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효율을 고효율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비용의 부족은 많은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중 일정 수준 이상 대학교의 경우 보통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이

대략 140% 이상이라고 한다면 교육 선진국 수준, 예를 들어, 평일 대학생이 5-6시간 공부를 하도록 교육 구조를 갖추려면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이 대략 200%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원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이미 등록금이 GDP 대비 OECD 국가에서 상위권인 상황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교육비 부담을 시키게 되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지, 재단의 전입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많은 사립대학교와 주립대학교들은 기금 운영자금 수입이 학교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의 경우 기금이 40조원~50조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최고 기금이 많다는 대학의 경우 5천억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모의 기금조차도 사회적으로는 학부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쌓아 두는 나쁜 의미의 돈으로 모든 대학의 적립금을 매도하고 있다. 적어도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넘으면 이에 대하여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종자돈으로 기금화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방안들은 우리나라 대학교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립대학교가 전체 대학교의 85%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국립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투자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음



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대학의 경우는 법인화하여 자율성을 주어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화 이전에 지원하였던 예산 특히 인건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사립대학교의 경우 원하는 대학교를 선별하여 준국립화하고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되 이사회의 일정 수 이사를 정부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안은 단순 교부금 형태로 사립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따른 폐단을 줄일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 5. 결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가 성공하려면 최소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는 등록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졸업 후에 취업을 하여 상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졸업생들이 대출금 상환에 고통을 받고 있다. 둘째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상환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졸업생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대출해 주는 기금이 축소되어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결국 대학교에서 실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여 취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강화와 대학재정의 확충이 되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도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필 / 자 / 소 / 개

### 김민구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원 전산학과 석사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전산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KIST 연구원, 공연윤리위원회 뉴미디어부 심의위원,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연구회 운영위원장, University of Louisiana, CACS, 연구과학자, 현재 아주대학교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성공하려면 최소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는 등록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졸업 후에 취업을 하여 상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둘째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상환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